

도시공원 민간특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 "수익률 8.9%는 제주시와 약속했다?" -

10월 6일 JBS 8뉴스를 통해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는 토지 감정과 수용 절차를 거치면 사업계획을 낼 때보다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약속된 수익을 내려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업자는 8.9%라는 수익률을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발주청인 제주시와 약속했고, 따라서 약속된 수익률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 분양수익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때마다, 도내 전체 집값이 들쭉이는 현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주시와 사업자의 약속이 사실이라면, 제주시는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주거복지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분양수익을 명기하고 이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되었는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안서의 내용을 바꾼 것으로 만약 제주시가 분양가 인상을 용인한다면,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동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는 토지 보상비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보다 많아져서 분양가 인상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당초에 산정한 토지 보상이 자체가 토지주들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한 후, 조건을 바꾸어 이익을 얻도록 미리 치밀하게 공모한 것이 아닌지 충분한 의구심을 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주시장은 사업자의 분양가 인상 발언에 대해 제주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진행하다가 사업자가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의 발언처럼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이 있다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단체는 그동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 투기와 소유자의 공시지가 조작, 제주시의 불수용 결론, '임시회 통과 적극 협조' 등 행정과 사업자의 쟁점이 정황, 난개발 우려의 허구성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 왔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자체가 부정과 비리, 각종 특혜 시비로 이미 얼룩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주시는 지금 당장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철회를 선언하고, 도시공원의 당초에 공인한 대로 공유지로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고용'한다고 특혜를 얻고...

- 한진그룹의 제주칼호텔 매각과 국제자유도시의 민낯 -

한진그룹이 제주 칼호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칼호텔은 부동자산산문운수에 팔려 호텔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380여 명의 칼호텔 노동자들은 수 십년 간 일해온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30일 우리 단체를 비롯해 제주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칼호텔 매각 반대집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노동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사정에 따라서 회사를 정리하는데, 왜 칼날과 배너를 하나하나 겁니다. '능력을 키워서 다른 호텔에 취직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불안이면 공무원을 하지 그랬느냐?'는 비아냥이 댓글을 도배합니다.

기업은 혼자 자기 자본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생산물을 소비하는 시민이 없었다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기업을 자본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젖어있는 사람이라면 초기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딱한 사람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이 대표기업이고, 대한항공은 제주-김포 노선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부의 소중한 지하수를 뺏아쓰고 있고, 제주의 땅을 사들여 큰 부가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칼호텔도 제주 관광의 단골을 빨아 먹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이 줄어들자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결정하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380여 명의 해고는 남의 일입니까?

칼호텔만이 아닙니다. 초대형 카지노 허가를 앞두고, 신화월드도 미리 카지노 직원을 고용하여 허가를 주지 않으면 지역주민들 고용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지역주민으로 80% 고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협박 반 말레기 반으로 허가를 얻어 냈습니다. 제주도정은 약속 이행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이를 구실로 허가를 줍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신화월드의 지역주민 고용 약속은 25%에 머물고 있고, 아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 3천 명을 고용하겠다고 오해를 떨었지만, 카지노 허가를 얻고 난 후에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말 돌리기 바쁩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 방관하고 있는 제주도정에 대한 분노가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칼호텔 매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제주도청 앞에 가서 하겠습니까? 자본에게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에서 제주도정이 근심하는 것은 자본이 규제에 의해 개발을 하지 못하는 것 뿐인가? 이것이 국제자유도시 정부의 민낯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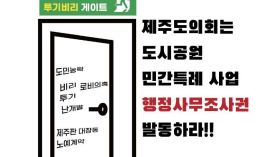
활동이모저

- 9월 1일 [한정] 회복 힐링(하수처리시설 공사진행상황 확인 및 용수순환 관련 현장확인)
- 9월 1일 [미디어] CBS라디오 인터뷰: 상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
- 9월 7일 [창방] 30주년 유래의 사색전
- 9월 7일 [인터뷰] KBS 탐나는 제주: 제주 상하수도요금 인상 관련
- 9월 9일 [오늘을 부탁해] 분산 추진을 담사: 단산(바가지 오동)
- 9월 15일 [공동행동]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위한 촉구서 전달(국회 농축수산위 소속 의원 대상 67건)
- 9월 16일 [인터뷰] 제주CBS '시사예견' 제주: 참여원정대원 합류30년 제주시민회사로
- 9월 17일 [카드뉴스] 추석사기 사범기 이슈결산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
- 9월 23일 [인터뷰] 제주2020 행정사무감사 도민인문답에 따른 의견서 제출
- 9월 24일 [인터뷰] KCTV 전직공무원의 공개된 인사 관련(권아미 논)
- [연말] 회복전 정황수 선성남: 제주수용 관련 상담
- 9월 25일 [생태내차양성교육] 안뜨림을 만나러 가는 길
- [오늘을 부탁해] 분산오름 탐사: 우암오름
- 9월 27일 [생태내차양성교육] 후식산(세오름) 모니터링: 용눈이오름
- [미케팅] 제2공화국 백지화를 위한 도의회 알리미
- 9월 29일 [인터뷰] KCTV 내도 알리지 복순 관련 인터뷰
- 9월 30일 [기자회견] 제주 칼호텔 매각 반대 및 규탄 제주지역 공동 기자회견 (공동성명) 고태와 보건정책에 반하는 제주지역해피피크 조성방안 반대(대아 협대)
- [해손오름 모니터링] 세밭오름
- 10월 1일 [복합프로젝트] 회복탄수성고등 서식지 정화활동
- 10월 5일 (국회)추진위원회 방문: 대학생 대상 단체활동 및 제주주한 안대
- [회의] 대안화 연대회의 집행위 회의
- 10월 6일 [인터뷰] 오동봉공원 민간특례 아파트 분양가 관련 인터뷰
- 10월 7일 [성명] 오동봉 민간특례사업자의 아파트 분양가 인상 발언, 제주주한을 일망타령하라
- [카드뉴스] 오늘을 부탁해: 분산오름추진 '따라비오름'
- 10월 8일 회복탄수성고등(복합) 및 용수순환 관련 의견서: 회복탄수성고등(복합) 관련 의견서
- [오늘을 부탁해] 가이더리 릴레이 발간
- 10월 9일 [오늘을 부탁해] 분산오름 탐사: 양주산
- 10월 11일 [생태내차양성교육] 해양쓰레기 없는 제주바다를 위한 시민행동
- 10월 12일 [공동성명] 퇴원 정호준을 이용한 대규모 비하행을 전문 시료 수집계획 철회를 위한 제주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10월 13일 [카드뉴스] 오늘을 부탁해: 분산오름추진 '정주산'
- 10월 14일 [오늘을 부탁해] 분산오름 탐사: 풍운
- [인터뷰] 제주일보, 세밭오름 비당성(사)를
- 10월 15일 [세미나] 창신양산강산정관제주권유류물관리위원회 수립(안근우영역 세미나)
- 10월 18일 [성명] 제주도의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
- [인터뷰] JBS 8뉴스 인터뷰: 도시공원 민간특례 관련
- 10월 19일 [인터뷰] 뉴스: 상신일출봉 야간 일출 대형 빈스쿨 논란
- 10월 20일 [인터뷰] KCTV 뉴스: 오름에 로복부대어 설치 관련 인터뷰
- [공동성명] 제주 국회의원 3인에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 진상조사권 구성을 요구
- [토론회] 제주수용을 정황수
- 10월 22일 [해손오름 모니터링] 세밭오름



양용찬 열사 30주기 추모제(11.07)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2021년 11월 7일은 양용찬 열사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지, 2차종합개발계획 폐기를 외치며 30년 단행한 지 30주기가 된 날입니다. 열사가 바라는 삶의 터전으로써의 제주, 우리 단체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며, 열사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 국제자유도시의 골격을 넘어 도민이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도시공원민간특례, 약속된 수익률 8.9%? (10.07)

최근 출현한 도연의에 의해 제주시와 사업자가 맺은 오동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협약이 공개됐습니다. 협약에서는 실시간적인 인가 날짜를 특정해 두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주시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협약서를 5년간 비공개하겠다고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거기다 사업자는 제주시와 협약당사자부터 8.9%의 수익률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철저한 정당성과 공공성을 모두 상실했습니다. 강사원 조직과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국대원의 철저하고 적극적인 진실규명과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회복탄수성고등 서식지 살리기 정화활동(10.01, 11.03)

10월의 첫날, 우리단체 회원들과 활동가들은 곤골마을에 대

책이와 함께 회복탄수성고등 서식지 정화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천 불합리한 육과 고하수처리시설 설치 위한 주민들의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된 때 천천히 동쪽 물줄기, 그러나 폐천된 하천이 옛날의 수로로 인공 용천수의 풍부한 수량 때문에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기수강고등 서식지를 지키고, 문제점을 알려 나가기 위한 정화활동, 매달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있고 함께해주세요!

하수처리장 증설 난항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도시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의견서 제출(9.23)

지난 10월에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던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도민인문답 수렴결과 도시공원을 두고, 우리 단체도 제주하수처리장 증설 난항과 도시공원 민간특례 문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참여가 쉽지 않은 예산의 불투명한 공개 문제와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조제 부재의 문제 등에 대한 제안과 질의를 제출하였습니다. 적반하장, 수렴된 민도 의견이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던 사실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해당 사항들이 도의회의를 공론화되었습니다. 반영의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해손오름 모니터링: 세밭오름(9.30, 10.22)

'인생학 인생살이' 탐방로 내에서 '어느-도-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철에도 선선하지 않은 약탈된 시야로 난 답답한 혼적 속으로, 탐방객들은 그곳이 시선 스터머! 생애의 의상 없이 방방로를 돌아가는 짙은 가을, 모기 때문에 얼어오는 일러지만, 10월 1일 탐방객이 약 8천-9천 명에 이르고, 시간당 탐방객이 900여 명에 도달하고, 오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라도 세밭오름을 하루빨리 휴식지라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라생태길잡이] 안뜨림을 만나러 가는길(9.25)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윤 리해 관을사 탐방로 상설 모니터링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9월 25일 오전에 별 도봉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생태내차 양성교육 기조강연과 더불어 [안뜨림을 만나러 가는 길, 프로그램]을 위한 위촉되었습니다. 교육생들에게 공부하고 관찰한 별 도봉의 식생에 대해 소개하고, 이른 친디 마당에서 각종 숲놀이도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라생태학교도 진행될듯, 한라생태길잡이도 찾았



[생태내차양성교육] 세밭오름(9.27)

올해 9월에는 조금 특별한 휴식일 오름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생태내차 기조강연 교육생들과 함께 휴식일 오름을 동행하며 활동 반도도 알려주고, 모니터링 과정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레길 생태의 노후유 유류 교육생들과의 식생 자식이 더해져, 일하고 재미난 시간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름 용눈이 오름은 휴식지! 생태내차 회복을 하고 있었던 듯도, 부디, 용눈이 오름이 평온한 휴식을 통해 애증 모습을 회복할 것길 바라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제주바다를 위한 시민행동(10.11)

지난 10월 11일에는 한라생태길잡이 생태내차 기조강연 교육생들과 함께 강령 당개해안을 찾았는데요.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제주바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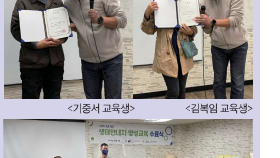
위해하였는데요, 커다란 스티로폼 부표는 보이지 않던 텅 개해안. 그러나 조금만 고개를 숙여 해안가를 살펴보니, 곳곳에 스티로폼 알갱이가 한두알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건져도 할수도 알갱이로 부서져 버려 청소도 쉽지 않은 스티로폼. 이런 해양 생태계와 우리 모두를 위해 스티로폼 부표 생산과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태내차양성교육 수료식(10.04)

'0년 교육은 제 생애의 한 꼭짓점이 된 교육입니다. 제주를 보는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4월부터 즐겁게 달려온 2021 생태내차 양성교육 기조강연,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에 함께한 교육생들 덕에 무사히 수료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무려 14명의 교육생이 수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의 수료는 생태내차로써의 또 다른 시작! 내년 교육생들과의 인연이 깊어 가져 지속적인 제주를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교육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수료식>



<중서서 교육생>



<김빛님 교육생>

<올레로 오실까요?>

<한라생태길잡이로 오세요!>